

野 “이종섭, 국가가 해외로 도피시켜”… 與 대응없이 ‘침묵’

(채 상병 의압사 핵심 공범)

이종섭, 주 호주대사 내정자로 출국 민주당 “외교부·법무부장관 탄핵” 이준석 “‘런종섭’이라 불릴만 해” 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도 비판 與 “호주, 국방관련 현안 많은 나라 대통령실, 성질 고려해 인사한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장관)가 호주로 출국하면서 야당이 여권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이 내정자 출국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른 야당들도 이 내정자의 호주 출국을 맹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사안에 별 다른 대응을 않는 모양새다.

이종섭 내정자는 전날(1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약 20명은 이 내정자의 출국을 막기 위해 조를 나눠 인천공항 게이트를 뒤졌지만, 이 내정자를 만나는 것에는 실패했다.

이 내정자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은 총선 전 정국에 불씨를 더한 모양새다. 야권은 일제히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총선이 한달 남은 상황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정권 심판론의 한 축으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 행태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내정자의 출국에 대해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공수처가 해외 도피를

방조했고,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검증과 출국 금지 해제 조치로 이 내정자를 해외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내정자의 호주대사 임명에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패·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책임을 물어야 할 신병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다”며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인가.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내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런종섭’(run과 이종섭의 조어)이라고 불릴 만 하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이 도주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외교부·공수처의 방조와 공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단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갈 수 있었겠는가”라며 “호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종섭 내정자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과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원론적인 발언을 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호주란 나라가 국방 관련 현안이 많은 나라인 걸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성질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홍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중요한 피의자라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며 “이종섭 전 장관께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특검인을 제외하라는 것을 지시한 적이 확실히 없다고 말했던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한달 남았으니 변수는 많겠지만,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은 (여론 변화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인 선대위’ 체제로

김부겸 “당에 다시 돌아온 이유尹 정부 심판·입법부 지키러 친명·친문 이런 말 내버려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기자회견을 마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11일 이재명 대표-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3인 체제’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합선대위 구성에 핵심이 되는 인물은 김부겸 전 총리였다. 민주당에는 지역구 선거도 뛰어야 하는 이 대표와, 나이가 많아 적극적인 선거 지원이 어려운 이해찬 전 대표를 대신해 원외 인사로 선거를 진두지휘할 인물이 필요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공천과 정에서 나타난 비이재명계 ‘공천 배제’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하며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김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 직을 제안했고 김 전 총리는 고심 끝에 11일 오후 국회에서 수락 기자회견을 하며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다.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제가 선대위 합류에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때서운 평가 때문”

당 상황실장은 당이 꾸린 통합선대위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은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라며 “선대위의 성격은 민주당에 요구되는 혁신과 통합, 그리고 국민참여, 이번 총선 성격인 심판이라는 네가지 성격을 담은 구성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는 당의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공영운 현대차 전 사장,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만 대한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당에서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밝힌 공동선대위원장은 총 8명인데, 국민참여위원회위원장이인선되면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맡게 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선대위 구성에 이어 당의 공천 갈등으로 최고위 보이콧을 선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 복귀해 ‘원팀’의 모양새를 갖춰가는 중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동훈 “민주당, 이번 총선공약 반미인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배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야권 연합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에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운영위원은 과거 반미단체로 알려진 ‘겨레하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이라며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방향성과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주길 바란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도 재차 더불어민주당연합의 비례대표 선출을 비판했다. 그는 김경울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색깔론을 가지고 접근할 생각은 없다. 제가 그런 걸 싫어한다”며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러니 여러분이 이 단체(겨레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간 활동들과 북한 쪽하고 초청이라든가 주고받은 문건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아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준 거지, 우리는 종북 안 할 것”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종북할 거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예진 기자